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변화된 결혼이주여성의 삶*

장 임 숙 (부산대학교)
(mukk73@naver.com)



국문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결혼이주여성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엔데믹 전환에 대응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 7명을 연구참여자로 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일상생활, 노동 및 소득, 건강 및 보건의료, 자녀돌봄 및 교육, 사회적 관계, 외국인 차별 등 6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변화와 당면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조사 결과, 6가지 영역은 “집콕의 일상화”, “코로나 실직과 취업난에 막막한 세계”, “방치된 코로나블루와 취약한 정보접근성”, “돌봄 교육 공백에 일, 가사, 양육 삼중고”, “일차적 관계와 모국인 중심의 좁은 사회관계망”, “사회적 편견에 불안감 고조” 등으로 범주화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엔데믹 전환에 대응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

주제어 : 코로나19, 결혼이주여성, 지원정책, 변화된 삶, 심층면접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91939)

I. 서론

세계화로 인해 국경의 의미가 쇠퇴하고 국가 간 노동·자본·재화가 자유로이 이동하면서 세계 경제가 크게 성장했다. 이주의 세계화는 국제 비즈니스 발전과 투자 활성화를 촉진해 경제적 편익을 안겨 준 반면,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확산의 국면에서 팬데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국가들은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물리적 대면 소통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21세기 들면서 국경을 넘는 사람은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유엔 경제사회국(DESА)의 “2019년 국제 이주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이주민 수는 현재 2억 7,200만 명으로 2010년 2억 2,100만 명에 비해 23% 증가했는데, 이 수치는 세계인구증가율 11%와 비교해 두 배 넘는 증가율이다(한겨레, 19/09/20). 한국으로의 이주민 유입은 1990년대 산업연수생제도의 도입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후 국제 결혼이 증가한 200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그에 따라 2006년 이주민 수는 536,627명으로 총인구의 1.1%였으나, 2020년 2,146,748명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한다(행정안전부 2021).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이주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로 국경봉쇄가 이루어진 2019년 221만 명에 달하던 이주민 수는 1년 새 4.7% 줄었고, 그중에서도 이주노동자와 유학생의 감소 폭이 컸고 결혼이주민의 입국도 소폭 감소했다(행정안전부 2021).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제 이동의 감소는 이주민에 대한 인식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은 52.27점으로 2018년 조사(52.81점)보다 0.54점 떨어졌고, 외부에 대한 개방성을 측정하는 지표의 점수도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주민을 본 적이 없다”는 응답도 3배가량 증가했다(여성가족부 2022). 또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에서 실시한 이주민 설문조사에서 이주민 중 29%가 코로나 이후 일상적 혐오와 차별이 심해졌다고 응답했고,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차별을 인식하는 비율도 74%로 매우 높았다(오마이뉴스 20/12/02). 이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주민과의 교류·소통이 단절되면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배제가 오히려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감염병의 위협은 인종, 민족, 국적을 초월한 것이지만, 그 영향은 사회구조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집중된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실제로 사회활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주민들은 경제, 사회, 복지영역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집단 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코로나 초기에 국내 이주민들은 공적 마스크 구매에서 차별받았고, 미등록이주민들은 국가예방접종서비스에서 배제됨에 따라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미등록 체류자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었으나, 팬데믹 이후 대다수 보건소가 예방접종 업무를 중단했기 때문이다(한겨레신문 22/01/22). 이후 질병관리청의 조치에 따라 미등록이주민 예방접종서비스가 재개되기는 했으나 거의 2년 가까이 미등록이주민과 그 자녀들은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단지 건강권 위협에 그치지 않는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의하면, 내국인 실업률은 2019년 3.8%에서 2020년 4.0%로 0.2%p 늘어난 데 비해 이주민 실업률은 5.5%에서 7.6%로 2.1%p 증가해 이주민이 더 많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https://kosis.kr>). 코로나19의 고용영향은 내국인보다 이주민에게 더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바이러스 공포는 중국인 등 이주민을 향한 차별과 혐오로 이어졌다. 이주민들은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을 고위험군으로 취급하는 시선이 혐오문화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불안해한다. 특히 중국인들은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 이주민집단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외출을 자제했고, 중국계 학생들은 같이 수업을 듣거나 식사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에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참세상 20/03/20).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인 생명·건강권에 소위 ‘자격’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한국 사회가 인정하는 사회구성원의 범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결혼이주민의 상황은 다를까. 코로나19 사태 이후 결혼이주민의 삶 또한 암울하다. 이주여성단체들은 다문화강사로 활동하는 이주여성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 등교중지로 인해 경제활동이 중단되었고, 또 돌봄 문제는 사회 네트워크가 취약한 다문화가족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이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엔데믹 전환에 대응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노동 및 소득, 건강 및 보건의료, 자녀돌봄 및 교육, 사회적 관계, 외국인차별 등 6가지 영역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변화와 당면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이론적·정책적 검토

1. 연구 동향

2002년 사스를 시작으로 이제 감염병 대응은 지구 공동의 문제가 되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http://www.kdca.go.kr>), 중증급성호흡증후군 사스(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 SARS)는 2002년 11월에서 2003년 7월까지 유행하여 8,096명의 감염자(사망자 774명)가 발생했고 우리나라에서는 4명이 확진을 받았다. 2009년 3월에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플루는 2010년 8월까지 세계적으로 1,632,258명이 감염되고, 국내에서도 107,939명이 감염되었다. 그리고 2012년 6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로 전 세계 25개 국가에서 1,401명의 확진자와 국내 18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 세계적인 감염병의 발생으로 감염병의 영향과 그 대응에 관한 학문적 관심도 증가했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된 국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인종차별주의와 제노포비아(Xenophobia), 감염병 확산에 대응한 이민자 건강권 보호와 공중보건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국경봉쇄 및 이민제한 조치에 따른 노동력 문제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집중한다.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Doàn et al.(2021)의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미국 이민자와 그 커뮤니티에 미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보건의 역할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보건 및 사회정책에서 인종차별주의, 이민정책, 시민권 및 이민자 지위의 영향을 분석해 체계적인 인종차별의 실태를 파악했다. Doàn et al.(2021)는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이민'을 꼽고, '이민자 커뮤니티'가 코로나19 감염위험을 높이는 사회적 결정요인이라고 보는데, 이민자들은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시기에 고위험 환경에서 계속 일해야 했지만 실제로 건강관리 및 경제적 구제에서 배제되고 차별받았다고 주장한다. 팬데믹 이후 이민자들이 비공식부문과 같은 저소득층 일자리에서도 배제되고, 사회 및 가구 구성원들과 떨어져 안전하게 격리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기준 이하의 주거 환경에 살고 있으며,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접근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데에는 사회체제적인 요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더불어 이민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치료, 문화감수성을 가진 의료전문가와 의 연계 등에서 기존 공공의료 인프라가 가진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Public Health 3.0의 발전방안을 제안한다. 미국 보건부와 휴먼서비스부는 Healthy People 2030 캠페인

의 일환으로 공공보건 대응의 새로운 모델인 Public Health 3.0을 제시했는데, 이 모델은 건강 불평등을 유발하는 사회, 경제 및 환경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사회 지도자 간 협력을 강조한다. Doan et al.(2021)는 Public Health 3.0 인프라를 개선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건의 사회적 결정요인 고려,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적절한 도구와 기술 개발 등을 제안하면서 향후 공공보건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코로나19 구호기금, 검사 및 백신접종 관련 정책과정에 이민자공동체의 참여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lark et al.(2020)의 연구는 미국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사회경제적 접근을 강조하고, 미국 텍사스주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코로나19의 잠재적 영향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와 주정부 및 국가 수준의 조치로서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경제적 및 법적 보호와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주장한다. 개선방안으로서 의료시설을 출입국 단속이 금지된 곳에 지정하여 이민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의 자격기준을 변경해 체류자격을 불문한 모든 이주아동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안전한 고용환경 제공과 문화적·언어적으로 적절한 공중보건메시지를 이민자커뮤니티에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Rocha et al.(2021)의 연구는 브라질 이민자를 위한 종교조직, 사회서비스기관, 의료서비스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커뮤니티의 경험, 질병통제센터(CDC) 지침에 대한 반응,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 코로나19 팬데믹이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코로나19가 브라질 이민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브라질 이민자 커뮤니티는 생활공간의 과밀과 비공식부문 대면서비스업 노동력의 과잉대표성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에 특히 취약하고, 이민자의 언어능력, 체류자격, 추방 공포 등이 감염병 관련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덧붙여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위생 습관, 사회적 거리두기, 정보전달 등이 브라질 문화규범으로 자리 잡았고, 브라질 이민자커뮤니티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바이러스에 대한 집단 취약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한다.

또한 Wilson et al.(2020)은 최근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조치로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통제할 수 없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그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우려하면서 미국의 경제·사회 영역에서 이민자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민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연방 및 주정부 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과 같이 해외 연구는 이민자 및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코로나19의 파급효과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정책적 차원에서 이민자의 건강권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국내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등재(후보)학술지 논문 중 ‘감염병’으로 검색된 연구는 2022년 6월 말 기준 총 1,285편이고, 이 중에서 사회과학 분야가 683편으로 가장 많다. 이들 연구는 주로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현상과 공공문제, 법제도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이주민 관련 연구는 거의 전무하고, 일부 재난연구에서 이주민에 대한 재난정보의 중요성과 재난교육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정도다.

같은 기간 ‘코로나19’로 검색된 논문은 총 6,359편이고, 이 중에서 다문화 및 이주민에 관한 논문은 86편이다. 특히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4편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코로나19와의 관련성은 높지 않다(김옥녀 외 2021; 박병섭 외 2021; 옥시후 외 2021; 진소연 외 2022).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이주민과 결혼정주민의 생태환경체계와 사회적 위험대응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옥녀 외(2021)의 연구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민과 결혼정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결혼정주민보다 결혼이주민의 사회적 위험대응정도가 높고, 결혼이주민의 개인 요인 중 신체 및 정신건강이 사회적 위험대응을 매개하여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가족기능 강화를 통한 위기극복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고, 이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옥시후 외(2021)는 신종감염병 예방을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이 높고, 자기관리능력이 있으며, 고혈압 진단 경험 여부와 보건기관 이용 여부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신종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언어 및 사회문화적 한계, 낮은 의료접근성 등을 고려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활동참여(경제활동, 지역사회활동, 전문능력활동, 교양능력활동)가 결혼만족과 결혼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진소연 외(2022)의 연구는 4개 요인 중 경제활동이 결혼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결혼행복감에는 경제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지역사회활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적 행위가 미래의 성공적인 결혼행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역설했다.

또 박병섭 외(2021)의 연구는 병으로 남편을 잃고 한국에서 23년째 살고 있는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를 분석한 결과, 연구참여자는 미군기지에서의 전문적이고

안정된 직장을 미국의 정책과 자신의 판단착오로 잃은 후 개업한 식당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부진하지만,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있으며,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종교적 신념이 강한 지지체계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어 종교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혼자가 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안전망 수립과 결혼이주민 세대간 경험전달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다문화가족 연구는 총 17편이고, 분야별로 정책·서비스 6편, 교육 4편, 심리·정서 3편, 언론·미디어 3편, 건강 1편 등이다. 분야별 연구 동향을 요약하면, 정책·서비스분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실태(김수정 외 2020; 고선강 외 2021; 구수연 2021; 진미정 2021; 박연진 외 2022)와 다문화가족자녀 지원방안(김규찬 2021)에 관심을 기울이고, 교육분야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이주배경아동의 학습환경과 학업성취에 역점을 두는 경향이다(김강남 2021; 이은혜 외 2021; 조정래 2022; 신주미 외 2022). 그리고 심리·정서분야는 주로 코로나19 이후 다문화자녀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연구하고 있으며(이재경 외 2022; 이래혁 외 2022; 장현진 외 2022), 언론·정보분야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미디어접근성과 언론보도 양상에 관심을 가진다(하일수 2021; 기준성 외 2021; 송원일 2022).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다문화 가족 연구의 주된 관심은 연구 분야에 따라 주제는 달라도 이주아동에 편중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거대한 사회적 변화에 비해 이주여성의 삶과 코로나19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려는 학문적 시도는 매우 더디다. 이주아동 연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이주여성 관련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이주여성은 이주민이자 여성이라는 중층적 취약성을 갖는다. 여성은 남성보다 재난안전교육을 받을 기회와 경험이 적어 재난 대응력이 낮거나 취약성이 높다(김남순 외 2021, 799).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국민이 재난피해자로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중층적 재난취약계층인 이주여성의 안전과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주여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2.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한 결혼이주민 지원정책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크게 재정정책과 심리지원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재정정책은 저소득지원형, 재난피해지원형, 소득 및 일자리보전형, 기타로 나뉘며, 지원대상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일반국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과학기술인, 농업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https://www.korea.kr>).

첫째, 저소득지원형 정책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져 월세 체납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7천 호를 제공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결혼이주민의 상당수가 소득수준이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주거불안정성이 높고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 결혼이주민은 주거위기가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재난피해지원형 정책으로는 ‘추가 생활지원비’와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을 들 수 있다. 팬데믹 시기 정부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에 더해 재택치료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재택치료 기간 10일을 기준으로 가구별로 추가 생활지원비를 지급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와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을 대상으로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결혼이주민 중 확진자와 농업인은 이 정책의 지원대상이 된다.

셋째, 소득 및 일자리보전형 정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과학기술 으뜸적금’, ‘소상공인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고용유지지원금’, ‘예술인 고용보험’,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및 기존업종 지원기간 연장’, ‘코로나 피해 관광업계 조기회복지원’, ‘일상회복 특별용자’, ‘희망대출’ 등이 있다. 결혼이주민과 그 가족 중 소상공인,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취업준비생, 관광업체 사업주 등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고용유지지원금, 관광업계 조기회복지원, 일상회복 특별용자, 희망대출 등의 수혜대상이다.

그리고 정부는 코로나19 심리지원정책으로 11종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및 가족, 격리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심리상담(통합심리지원단)’, 코로나19로 인한 민원 다발 품목 소비자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코로나19 소비자상담맵’, 중소기업 및 대국민을 위한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 코로나19 관련 기업애로사항을 상담하는 ‘코로나19 피해상담 통합창구’ 등이 있다.

한편, 코로나19에 대응한 결혼이주민 관련 지원정책으로서 여성가족부는 한국생활가이드북, 다누리포털 등을 통한 다문화가족 정보제공 및 코로나19 방역 및 안전수칙을 12개 언어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비대면 확산에 따른 언어·문화적 차이로 자녀양육 및 성장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족센터 통·번역사가 학교의 가정통신문, 안내문자 등 학교생활 통·번역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산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가 언어·문화적 차이로 자녀양육 및 성장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원격학습 등의 지원을 강화했고,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해

온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온라인 멘토링’을 새로 도입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한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한외국인 지원활동 및 봉사활동 등을 담은 미담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홍보동영상을 재한외국인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영상으로 대체하였다. 외교부는 베트남 한베 취약가정 현지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베함께돌봄센터’ 사업으로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베트남 귀환여성 자녀 및 보호자 온라인 건강정보 교육을 실시하고, 코로나 관련 위기아동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소방청은 이질적인 문화 및 언어소통 부재로 인한 안전 위협요인을 제거하고자 법무부와 협업하여 ‘국내체류 외국인(다문화가족) 소방안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결혼이주민 지원정책은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언어적 차이로 취약성이 가중되는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 교육, 홍보 분야 정책개발 및 집행에 역점을 두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결혼이주민 지원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국가 법령이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특정다문화영향평가(가칭)’ 제도의 도입이다. 코로나19로 심화되는 집단간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해 우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정부간행물, 교육자료 등에 있어서 다문화인종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사전컨설팅도 담당하는 ‘다문화모니터링단(가칭)’을 운영한다(여성가족부 2021). 이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법령이나 정책에서 다문화 차별요소가 없는지를 점검해 권고하는 ‘특정다문화영향평가(가칭)’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여성가족부 2022). 아울러 누구든지 특정 문화, 인종, 국가 관련 혐오발언으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도입된 정책은 감염병 확산으로 결혼이주민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이 겪는 일상적 차별과 소외를 완화하고 포용적 가치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질적 연구는 인간의 행위와 가치 등을 양적 계량으로 환원하기보다는 ‘그 본래 입장에서’

접근하고 그 구체적인 양상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구체적이고 실존적 개개인들의 삶이 갖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이다(박철민·도지인 2019, 21). Patton(2002)은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심층면접방법의 유용성을 강조하는데, 심층면접에서 특정한 현상에 관한 사람들의 경험, 의견, 느낌 및 지식에 대한 직접적인 인용 문구가 연구의 유용한 자료가 된다. 심층면접은 이미 계획된 형식이 아닌 연구참여자와 자유로운 대화 형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의 생각이나 감정이 자세하게 드러남으로써 현상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이해가 가능해진다(김형태 2014, 40).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방법의 하나인 심층면접방법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상생활, 노동 및 소득, 건강 및 보건의료, 자녀돌봄 및 교육, 사회적 관계, 차별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심층면접방법은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연구참여자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삶에 대해 총체적으로 재고하고,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그들의 상념과 내면에 잠재되어있는 욕구·태도·감정 등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다.

연구참여자는 국내 10년 이상 거주하고 자녀가 있는 결혼이주여성으로 선정했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에서의 삶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족생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최소 10년 이상 국내 거주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삶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서 돌봄과 교육환경의 변화를 민감하게 인지할 수 있으며, 자기 경험과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 수준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했다.

이와 더불어 연구참여자를 찾을 때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인구학적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국적, 연령, 가족형태, 학력, 가구유형 등을 고려했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비율을 반영했고¹⁾, 둘째, 자녀의 생애주기별 발달에 따른 돌봄 욕구 파악을 위해 자녀 연령대를 고려하며, 셋째, 정착주기 장기화에 따른 한부모 다문화가족 증가 등 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외에도 한부모가구를 포함했고, 넷째, 이주여성의 학력 수준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며, 다섯째, 코로나 팬데믹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맞벌이, 외벌이 등의 가구유형과 이주여성의 취업 여부를 고려했다.

1) 행정안전부(2022)의 “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국적 비율은 베트남 40,697명(23.3%), 중국 34,523명(19.8%), 중국(한국계) 28,695명(16.4%), 일본 13,537명(7.8%) 순이다(행정안전부 2022, 58).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참여자1	참여자2	참여자3	참여자4	참여자5	참여자6	참여자7
출신국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중국	중국
나이	50세	38세	37세	46세	35세	41세	40세
결혼상태	이혼	기혼	기혼	기혼	기혼	기혼	기혼
자녀수	1명	2명	2명	1명	2명	1명	3명
자녀나이	19세	16세/19세	12세/14세	17세	10세/13세	5세	2세/9세(2명)
최종학력	대졸	고졸이하	고졸이하	고졸이하	대졸	석사 졸업	석사 졸업
취업여부	취업	취업	무직	취업	취업	취업	취업
가구유형	여성홀벌이	맞벌이	남성홀벌이	맞벌이	맞벌이	맞벌이	맞벌이
거주기간	23년	19년	16년	20년	14년	12년	20년

2.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2022년 2월 10일부터 2월 16일까지 7일간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는 부산지역 이주여성 자조모임과 학교를 통해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추천받았다. 연구의 목적과 내용, 면담 방법, 개인정보 및 비밀보장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면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여성을 선택하여 면담을 진행했다. 또한 자료의 윤리성 확보를 위해 면접내용의 녹음 필요성과 연구목적 이외에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연구종료 후 영구 삭제할 것을 사전에 설명했다.

심층면접은 코로나19 확산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 참여자의 감염 불안감을 덜고자 대면 및 비대면 방식을 병행했다. 면접은 사전에 약속하여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졌고, 면접 시간은 개인당 60분 이상이였다. 면접 횟수는 1회였고, 자료 분석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전화와 SNS를 통해 추가면접을 실시했다.

면접내용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구성했으며, 연구의 주요질문은 “코로나 시기에 하루 일과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등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본인이나 가족이 실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등 노동 및 소득에 관한 질문, “평소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등 건강 및 보건의료에 관한 질문, “하루에 자녀돌봄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등 자녀돌봄 및 교육에 관한 질문,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등 사회적 관계에 관한 질문, “코로나로 인해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족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등 외국인차별에 관한 질문 등으로 구성했다.

면접 자료는 모두 녹음되고 전사되었으며, 면담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연구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 열거하고, 주제영역별로 범주화하여 분석한 다음, 최종적으로 결과를 해석했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상생활, 노동 및 소득, 건강 및 보건의료, 자녀돌봄 및 교육, 사회적 관계, 외국인차별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와 당면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수행한 심층면접조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일상생활 : ‘집콕’의 일상화

결혼이주여성의 하루 생활구조를 보면, 이전에는 평일 출퇴근과 주말 외출이 반복되는 패턴이었으나 코로나 이후 이주여성들은 실직하거나 시간제, 단기, 일용근로 등으로 일하게 되면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했다. 특히 주말 및 휴일에는 주로 외식, 사적 모임, 여행, 운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외부에서 시간을 보냈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마트 장보기를 제외하면 거의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있는 시간이 평균 3~4시간 정도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른바 ‘집콕생활’로 평균 6시간 이상을 자녀와 함께 있고, 심지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학교나 유치원이 문을 닫은 기간에는 종일 자녀와 함께 지내기도 한다.

코로나 이전에는 무역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했는데, 코로나 이후 실직하고 집에서 쉬어요. 이전에는 평일에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주로 주말에 약속을 잡아 외출했는데, 코로나가 심해진 이후로는 취소되는 약속이 많아져서 중요한 용건이 아니면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해요. (참여자 4.)

코로나 이전에는 모든 것이 평범했어요. 매주 한두 번 외출했고, 주로 휴일에는 지인을

만나거나 드라이브를 하며 나들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외출도 거의 안 하고, 휴일에도 집에만 있어요. 휴일에 장 보러 가는 일이 전부예요. 예전에는 일이 많아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평균 5시간 정도였는데, 요즘은 특별한 일이 없는 날에는 집에서 종일 아이들과 같이 있어요. (참여자 2.)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온 모든 일상이 무너져 버린 것을 꼽는다. 이주여성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로 모임이나 단체활동이 중단되고, 감염에 대한 우려로 대중교통 이용이나 장보기조차 꺼리게 되었고, 돌봄 공백으로 인한 육아 및 가사노동의 증가로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더 심해졌다고 한다.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은 이주민의 경우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가중되면 삶의 질과 가족탄력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

코로나 이전에는 어디든 마음 편히 다녔고, 모임이나 행사 등에서 인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래서 거의 주말마다 나들이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려고 외출했어요. 또 몸이 아프면 바로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받으면 됐고, 본국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울 때면 고국을 방문해 부모님과 가족들도 만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아이들도 여러 학우를 만나서 이야기기를 나눌 수 있었고, 아이 친구들의 가족과도 같이 여행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행사나 교육도 다 온라인으로 변경되었고, 코로나 이후에는 평일에도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거의 70%가 넘어요. 이전에는 퇴근하고 저녁에 겨우 몇 시간 아이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이제는 주말에도 중요한 일이 있는 날에만 외출하고 거의 집에만 있어요. 또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집에만 있으니 게임이나 TV에 빠질까 걱정되고, 삼시세끼 식사 챙기는 것도 힘들고, 그만큼 집안일도 더 많아졌어요. (참여자 5.)

2. 노동 및 소득 : 코로나 실직과 취업난에 생계 막막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생활 전반에 걸쳐 가장 힘든 문제로는 단연 고용불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대다수 연구참여자도 코로나 이후 실직을 경험하거나 시간제, 일용직으로 일하는 등 고용불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줄어서 1년 정도 실업 상태에 놓이거나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실직하거나 일이 줄어서 쉬는 기간에는 일용직이라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 결혼이주여성도 비숙련 공장이나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및 여행업 등 대면서비스업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양적으로 고용 타격이 가장 심했던 숙박·음식점업은 2021년 1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12만 6천개 일자리가 감소했고, 비슷한 특성을 가진 도소매업도 가장 심할 때 5만 개 일자리가 감소했다(민중의소리 21/04/28).

코로나로 직장을 옮긴 적도 있었고, 2020년 4월부터 서류대행 업무를 그만두고, 호텔에서 일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호텔 영업이 안 돼서 첫 달엔 월급을 70% 받았고, 다음 달부터 코로나가 심해져서 무급과 일급 받으며 일하다, 또 방역지침 풀렸을 땐 월급을 100% 받았어요. 하지만 코로나가 심해지면 또 일급으로 받아요. 소득이 일정치 않아서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다가 아르바이트, 룸메이드, 식당 홀서빙, 병원·출입국관리소·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통·번역 일도 했어요.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려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참여자 1.)

우리 부부는 맞벌이인데, 저와 남편 모두 다행히 실직하지 않았지만, 코로나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도 줄었어요. 저는 6년 넘게 시민단체에서 이주민 통·번역 업무를 하는데, 보통 8시간 근무하고 최저임금을 받아요. 남편은 자동차 금형 공장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잔업이나 야근 수당 등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근무시간이 줄어들테니 명절이나 휴가 보너스 혜택도 없어졌어요. 이전보다 가구소득이 20% 이상 줄어서 힘들어요. (참여자 5.)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 이후에 주택문제와 회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받은 적이 있고, 가계경제 중 대출이자, 각종 공과금, 의료비, 교육비 등의 부담이 크며, 특히 사회보험료나 세금 등 공공요금이 올랐는데 가계소득은 오히려 감소해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하기 힘든 상태라고 한다. 또 일부 참여자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받기를 원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일자리 발굴과 취·창업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요구했다.

코로나 이후에 전세보증금이 올라서 대출을 받았어요. 현재 대출이자 내는 것이 가장 힘들고, 병원비나 보험금, 생필품구입비로 돈이 많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니다. 코로나 이후에 생활비가 부족한데 일자리도 없으니깐 생계가 막막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주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코로나로 실업자가 된 경우에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1.)

최근에 각종 보험료와 세금, 공공요금이 올랐어요. 그런데 일자리는 줄고 복지혜택도 적어서 생활하기 힘듭니다. 취업률도 점점 더 낮아져서 앞으로 청년들이 더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학교 졸업하면 바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청년들의 취업지원과 일자리 사업에 더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2.)

베트남 항공권 판매하는 여행업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비행기 운항이 줄어든 이후 계속 실직 상태라서 월수입이 2~3백만 원은 줄어든 것 같아요. 생계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참여자 3.)

2020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이주민 307명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주민 70%가 소득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이 줄거나 없어지고(58%), 휴업과 해고(22%)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거나(35%), 코로나19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에 떨고 있는 것(42%)으로 드러났다(오마이뉴스 20/12/02).

3. 건강 및 보건의료 : 방치된 ‘코로나블루’와 취약한 정보접근성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신체 건강의 변화에 있어서는 개인차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를 심하게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적 모임 등이 크게 줄면서 우울과 고립감을 느끼며, 소득감소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도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으로 정신건강 상에 문제가 있어도 진료나 상담을 받은 경우는 드물어서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를 하니깐 운동 부족과 비만 등으로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것 같고, 백신접종을 받은 후부터 계속 피로감이 느껴져요. 특히 코로나 감염에 대한 걱정도 크고, 그 때문에 외출도 하지 않아서 가끔 화나고 답답합니다. 게다가 아이 돌봄이나 교육문제까지 겹치니 스트레스가 큼니다. 신체도, 정신건강도 다 나빠졌는데도 코로나 감염이 걱정돼서 병원에는 더 안 가게 돼요. (참여자 6.)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이전보다 의료기관 방문 빈도가 감소했지만, 오히려 증가한 사례도

있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지만, 코로나 이후 실직 등으로 불안과 우울감이 겹치면서 건강이 더 나빠진 것 같아 병원에 더 자주 가게 된다는 것이다.

직장 다닐 때는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지만, 코로나 이후로 계속 일이 없고 불안해서 그런지 어깨, 허리, 팔, 다리, 두통 등 여기저기 온몸이 다 아파요. 병원에서 검사해도 확실한 병명도 없고, 1년 내내 그런 증상이 계속되니깐 병원에 안 갈 수도 없어요. 건강이 안 좋아져서 운동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냥 집에서 가볍게 스트레칭만 해요. (참여자 1.)

연구참여자들은 건강을 위해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가 드물고, 주로 가정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이 중요하므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단활동이 제한되는 기간에는 결혼이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온라인으로 이주민 신체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가정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 참여자 중 4명은 증상의심, 병원 입원, 자녀학교 확진자 발생 등의 이유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병원 등에서 PCR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이 중에서 확진 사례는 2명으로 적지 않았다. 일부 참여자는 PCR 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이용시 기준이나 절차상 유연성이 떨어져 불편했고, 감염 우려로 불안감을 느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대부분 코로나19 백신접종을 3차까지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 감염병 극복을 위한 국민적 노력에 성실히 동참하고 있었다.

통역 일을 마치고 같이 갔던 동료와 밥 먹고 귀가했는데, 이후로 3일 동안 목마르고 가래에 장염 증세까지 있었어요. 보건소에서 항원검사를 한 결과 음성이 나왔어요. 몸에 열이 심해서 PCR 검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양성이나와야 선별진료소에 보내준다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병원 가서 검사비를 내고 PCR 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양성으로 나와서 확진 판정받았어요. 확진 후에는 자가격리를 하니 약 받는 것도 불편했어요. 우리 동네는 보호자가 보건소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야만 진료비와 약값이 무료예요. 그런데 코로나로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런지 지정병원에 전화하니깐 제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불친절해서 그냥 아들이 단골병원에 가서 돈 내고 약을 받아왔어요. (참여자 1.)

보건소에서 PCR 검사받았는데 사람이 많아서 오래 기다려서 힘들었어요. 양성이나닐

경우, 기다리는 동안 오히려 코로나에 감염됐을까봐 걱정됐어요. (참여자 2.)

그리고 코로나19 의료서비스와 관련해 초기에는 마스크 구입이 어려웠고, 감기 증상으로 병·의원을 찾아도 진료거부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는 점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후 모든 공공장소에 백신패스가 도입되면서 개인 사정을 무시한 채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감염위험으로 선별진료소 방문을 꺼리기 때문에 가구별로 자가진단키트를 지원받기를 원했다.

감기 증상으로 이비인후과나 내과를 찾으면 무조건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받으라고 하는데 요. 선별진료소에서 오히려 감염될 가능성이 커서 사실 노약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쉽게 진료소에 가지 않아요. 선별진료소 이용을 꺼리는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들을 위해 국가에서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참여자 2.)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을 안 받는 음식점들이 많아요. 백신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백신접종이 불가능하거든요. 백신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1.)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건강정보와 지식이 충분치 않다고 말한다. 코로나19 관련 정보는 정부의 재난문자, 국내외 언론, 직장동료나 친구 등을 통해 얻고 있으며, 온라인에는 정보량이 과다해 어떤 정보가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판단하기 힘들다고 했다.

코로나 관련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떤 정보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가격리, 지원정보, 코로나 소식 등의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면 좋겠고,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지원해주어야만 제대로 알아요. 1339 상담번호가 있지만, 연결이 잘 안 되고 늘 통화 중이라는 안내만 받아요. (참여자 5.)

일반적으로 한국어가 서툰 이주민들은 필요한 정보를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습득하고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경우, 정보가 일괄적으로 동시에 전달되기보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 전달될 가능성이 높는데, 코로나19 확산처럼 사건이나 방역수칙이 시시때때로 발생하고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사적 네트워크가 즉각적인 정보 전파와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허정원 외 2020, 132). 결혼이주민

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관련 정보 및 홍보자료 등을 가구별로 배부하기를 희망하고 있어서 재난정보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덧붙여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코로나19 대응 지원책으로 제공된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또 마스크나 손소독제, 자가격리물품 등을 지원받은 적이 있었고, 주로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 등에서 지원서비스를 받았고, 그 외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민지원센터, 시민단체 등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참여자들은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은 없었다고 했으나 일부는 재난지원금 사용과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한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카드로 받았는데, 카드로 쓰다 보니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몰라서 불편했어요. 이용시 불편한 점들은 개선되면 좋겠어요. (참여자 3.)

4. 자녀 돌봄 및 교육 : 돌봄·교육 공백에 일, 가사, 양육 삼중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일하는 이주여성들은 학교와 보육시설의 휴교·휴원 기간에 재택근무를 활용해 돌봄 공백을 막을 수 있었다.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심각하지 않을 때는 오전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오후 3시까지 재택근무를 해요. 4시에 아이 데리고 와서 같이 TV를 보거나 놀이를 해요. 코로나 확산이 심해지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일하면서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재택근무로 돌봄 공백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어요. (참여자 6.)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정 내에서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대화시간이 늘어나 자녀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부모-자녀 관계가 호전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여자들이 늘어난 육아와 가사노동으로 인해 자신만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자녀의 외부활동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늘어난 ‘집콕’ 시간에 게임이나 스마트기기에 과의존하는 양상을 우려하고 있었다. 또 육아와 가사를 혼자 도맡아 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 이후 남편이 일찍 귀가해도 육아나 가사에는 소극적이고 TV 시청이나 스마트기기에 빠져있다고 하소연했다.

아이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불안하고, 등교해서 수업받던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으니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고 효과적인 것 같지도 않아요. 아이들이

집에만 있으니 게임이나 TV에 빠질까봐 걱정이 큼니다. 또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 삼시세끼 식사 챙기는 것도 힘들고, 그만큼 집안일도 더 많아졌어요. (참여자 2.)

전에 비해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함께 있어서 좋지만, 나만의 시간은 전혀 없이 늘 식사를 챙기느라 힘들어요. 남편은 전에 비해 일찍 들어오지만, 집안일은 조금 도와주고 대부분 TV를 보거나 휴대폰만 봐서 답답합니다. (참여자 5.)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초기에는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었고, 온라인 수업의 경우 집중력이 낮아서 자녀의 성적하락을 걱정했다. 특히 자녀가 고학년에 가까울수록 진학 및 진로 문제에 대한 고민이 크지만, 다문화가정에 특화된 맞춤형 진학·진로 상담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하루속히 학교 수업이 정상화되기를 희망했는데, 그 이유로 아이들이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못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을 꼽았다.

코로나 이전에는 학교 끝나면 학원 다니면서 복습과 예습을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온라인 클래스가 도입된 이후에는 온라인클래스로 복습이 가능해서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돼서 좋지만, 온라인교육은 집중력이 낮은 게 사실이고, 실제로 우리 아이의 성적도 많이 떨어졌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학교 방역 수칙을 강화해서라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규수업을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 무엇보다 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싶은데, 진학 문제를 의논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이주민들은 정보가 부족해서 진학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센터를 찾기가 힘들어요. 이런 문제는 다문화가정, 특히 한부모가정 엄마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참여자 1.)

중학생 이상 자녀를 둔 참여자들은 온라인교육에 대해 회의적인 데 비해 유아거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일부 참여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겨서 제가 돌보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종일 아이를 돌보고 있어서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학교 온라인교육도 처음에는 적응 못 해서 불편했지만, 이제는 적응했어요. 사실상 온라인 교육은 선생님의 강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에요. (참여자 7.)

물론 일부 참여자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등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유아기에 불규칙적인 학습으로 인해 자녀의 학습 능력 저하가 걱정된다며 유아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교육과 가정용 교육자료의 지원을 요구했다.

아이들과 함께 있어서 좋지만, 재택근무 시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사실 힘들어요. 유치원생이어서 온라인교육이 없다 보니, 코로나로 인해 유치원이 휴원하게 되면 유치원 교육과 가정교육이 불규칙하게 이루어져 아이가 학습 능력을 기르는데 안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아이가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아에게 필요한 다양한 온라인 수업과 가정교육용 자료를 제공하면 좋겠어요. (참여자 6.)

5. 사회적 관계 : 일차적 관계와 모국인 중심의 좁은 사회관계망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몸이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로 배우자와 자녀한테 의지하고, 가족이나 친척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 등 가족으로부터 정서적·물질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물론 친구나 동료, 심지어 지원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례도 있었지만,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는 가족이나 친인척 등 일차적 관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심지어 일부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 단절로 경제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주로 동생한테 도움을 청해요. 가끔 한국이나 고국에 있는 가족, 친지들한테 도움을 청할 때도 있긴 해요. (참여자 3.)

예전에는 몸이 아플 때 주로 직장동료나 친구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동료나 친구는 물론이고 이주민단체 선생님에게도 도움을 받았어요. 코로나 이후에 직장동료들과는 서로 위로하면서 아이들 학교 이야기도 나누며 더 가까워졌어요. (참여자 5.)

아플 때는 남편과 자녀에게 도움을 받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도움받을 곳이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 친구들을 만나기 힘들어지니깐 관계도 점점 어색해지고 멀어져요. (참여자 2.)

아플 때는 항상 남편한테 의지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을 곳이 없으니 은행에 가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죠. (참여자 4.)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멀어졌고, 한국인은 물론이고 모국인과의 만남도 줄어들어 관계가 더 소원해졌다. 특히 한국인과의 교류와 만남은 크게 줄어든 반면 모국인과의 관계는 유지하는 편이었다. 어떤 참여자는 코로나19 이후에 오히려 모국인 친구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졌다고 느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는 이주민의 사회적 관계망을 더욱 약화하는 요인이며, 특히 모국인보다 한국인과의 관계 약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코로나 이후에 사실 지역주민들과 관계는 확실히 멀어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이웃들과 만날 기회가 적고, 코로나 때문인지 이주민을 보는 시선이 차가워진 것 같아서 이웃이나 지역주민들과의 관계가 망설여져요. (참여자 5.)

이전에는 모국인 친구나 다문화가정 부모 등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모국인들을 만났고, 한국인들도 직장동료, 지인, 서류 대행 고객들까지 포함하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났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2~3개월에 한 번 정도 한국인 지인이나 모국인 친구들을 만나요. 이전보다 관계가 좀 멀어졌어요. (참여자 1.)

코로나가 심해지고 나서 한국인 친구들은 전혀 만나지 않지만, 모국인 친구들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만나고 있어서 예전에 비해 모국인 친구들과 친밀감이 더 깊어졌어요. (참여자 4.)

V. 결론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이주민들은 권력의 열세와 낮은 자원 접근성으로 인해 재난피해에 쉽게 노출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결혼이주여성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노동 및 소득, 건강 및 보건의료, 자녀돌봄 및 교육, 사회적 관계, 외국인차별 등 6가지 영역에서 코로나19 이후 변화와 당면문제를 파악했다. 연구의 주요 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결혼이주여성이 겪은 일상생활의 가장 큰 변화는 ‘집콕’의 일상화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적 모임이나 단체활동이 중단되면서 외부활동이 크게 줄었고, 학교와 보육시설의 휴교·휴원으로 인한 가정보육의 증가로 ‘집콕’

이 일상화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있으며, 한국도 팬데믹의 상징이었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국민부담 경감 차원의 연착륙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업다운뉴스 23/01/30). 최근 우리 정부는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자율적인 방역실천을 강조하면서 코로나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데, 정밀한 출구전략을 마련해 진정한 일상회복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이주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의 일상회복을 돕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계층별로 일상회복의 수준에 격차가 있으므로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세계일보 23/02/12).

둘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결혼이주여성은 코로나 실직과 취업난에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숙박·음식, 교육, 문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면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코로나19 이후 실직을 경험하거나 일거리가 줄어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어 경제적 곤궁에 직면해 있다. 이같은 재난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생계보장을 위해서는 대상별 맞춤형 취·창업프로그램의 확대와 이와 연계한 새로운 일자리 발굴 및 소규모 창업 지원을 확대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질병, 실직, 무급휴가 상태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이주여성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의 소득보장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코로나 이후 연구참여자들은 신체 건강의 악화보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의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적 모임 등이 크게 줄면서 우울과 고립감을 느끼며, 소득감소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도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병 확산이 심각할수록 두려움과 공포, 혼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증식되면, 감염 우려가 있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가 증폭되므로 이주민의 우울과 사회적 고립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정신건강 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으로 진료나 상담을 받은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나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이주여성들이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방지하지 않도록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생산 및 홍보하고, 이주여성의 생애주기별 상황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감수성을 가진 상담 및 심리치료 전문인력의 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엔데믹 전환에 맞추어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며, 특히 30~40대 양육자들을 위한 온라인 영상 활용, 비대면 교육 참여방법 어플 활용 교육이나 매뉴얼 제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공동체형성을 통한 지지그룹을 형성하는 서비스 지원도 중요하다(김연화 2020, 47).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건강을 위해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주로 가정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이 중요하므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실시간 온라인 건강체력교실 등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결혼이주여성 신체활동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가정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해 이주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건강 및 재난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가 다량으로 전달되고 있어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판별하기 어려워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재난정보는 정확성, 적시성, 신뢰성 등이 필수적이므로, 이주여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적시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외국인의 정보접근성과 유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소식, 자가격리, 지원정보 등을 제공하는 채널의 일원화와 함께 정보전달 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결혼이주여성은 코로나19 상황처럼 신생 용어나 낯선 전문용어로 생성된 정보에 대한 이해능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한국어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눈에 이해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용어를 픽토그램과 함께 제시하는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이이슬 외 2021, 280). 이와 더불어 다국어 서비스의 지원범위가 대부분 생활정보나 민원 등으로 좁혀져 있고 지원언어 또한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인구 비중이 낮은 국가출신의 이주민의 경우 정보소외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 중인 재해 시 외국인 대상 다국어 지원서비스의 확대 개선이 필요하다(이이슬 외 2021, 279-280).

넷째, 코로나 이후 결혼이주여성은 보육기관, 유아교육기관, 학교의 휴교 및 휴원으로 인한 돌봄공백에 일, 가정, 양육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돌봄공백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자녀 관계가 호전되었다고 인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육아 및 가사노동의 증가로 자신만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외부와 단절된 생활 속에서 독박육아와 가사노동에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도록 공적 돌봄서비스의 확대와 영유아 중심의 현행 돌봄지원정책이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도 포괄하도록 개편해야 할 것이다(부산일보 21/05/04).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아동들을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활성화하여 이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들의 다양성과 재능을 계발해 사회의 미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에 특화된 맞춤형 진학진로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지역의 가족센터에 다문화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학업·진로 상담서비스 도입, 청소년 전문상담사를 통한 진로상담 실시,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로·취업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진로 및 진학 방향을 설계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망은 일차적 관계와 모국중심의 좁은 관계망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도움받을 사회적 관계가 빈약하고, 특히 경제적 곤궁에 처했을 때 가족친인척 등의 일차적 관계에 의존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적 모임이 최소화되면서 이주여성 은 한국인과의 접촉과 만남이 크게 줄어 모국인네트워크에 의존하면서 사회네트워크가 더욱 취약해졌다. 사실상 코로나19의 확산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조치는 필요하고 또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모순된 예방법은 의사소통의 왜곡과 사회적 고립,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락 등을 초래하여 이주민을 비롯한 노숙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을 위한 조치들이 개인의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국 감염병의 장기화는 이주여성의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고,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심화로 이어져 다문화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고립은 이주민과 같은 취약계층의 소득 손실을 초래하는 원인이자 결과이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맺기를 위한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 그리고 엔데믹 전환에 대응해 비대면 영역의 사회관계망 확대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코로나 팬데믹 이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주여성들은 사회적 편견에 불안과 초조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외국인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들이 증가했고, 온라인 매체를 통해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권을 비하하는 영상이나 글이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에 대한 혐오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우리 사회 곳곳에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낮은 수준의 언어적 혐오조차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므로 이를 조속히 법제도 안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조제성 외 2021, 427).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내국인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주민들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장려와 이를 위한 다문화교육의 목적과 내용의 확장, 대상·실행기관 확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성인 대상 평생교육 및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등에 인권 및 세계시민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고 후속과제를 제시하면, 본 연구는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한 결혼이주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와 조건이 다른 이주여성의 삶의 경험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감염병 확산과 같은 지구적 재난상황이 다양한 목적으로 이주를 선택한 여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삶 전반에 걸친 변화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향후 세부 영역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심층적인 사례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이후 해외에서는 한국을 위기극복의 모범사례로 꼽으면서 위기극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한국인들의 공동체의식에 주목했다. 그러나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체계와 수준 높은 공동체의식은 국민이 아닌 이주민들에게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국가의 감염병 관리체계에서 언어소통이 어려운 이주여성의 안전과 생명은 완전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도 오히려 심화되었다. 경제적 구제정책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관계에 있거나, 국적자인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자 등은 소외되었다. 우리는 종교집단 감염사례를 통해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방역체계에서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국경 봉쇄가 바이러스나 재난으로부터 자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최선의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다.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이해 이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체계의 구축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고선강·박정운·진미정, 202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직무요구 및 조직 문화가 종사자의 코로나19 관련 업무수행, 직무소진, 직무만족에 미친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9(2), 185-197.
- 구수연, 2021,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실태와 지원요구, *다문화콘텐츠연구*, 36, 7-44.
- 기준성·김민수·최민지, 2021, 코로나19 시대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지원 방안 연구,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8, 29-57.
- 김강남, 2021, 코로나19로 달라진 이주배경아동의 학습과 일상, *다문화와 평화*, 15(1), 118-142.
- 김규찬, 2021, 다문화가족자녀 실태와 지원서비스 욕구, *공공정책연구*, 38(2), 301-332.
- 김남순 외, 2021, 2020년 코로나19 대응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정·마경희·윤성은, 202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코로나19 대응 및 과제탐색, *생명연구*, 58, 245-271.
- 김옥녀·임동진, 2021, 결혼이주민과 결혼정주민의 생태환경체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험대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18(3), 35-66.
- 김형태, 2014, 초등영어교사의 전문성 탐구, *영어교육연구*, 46, 36-54.
- 박병섭·정용미, 2021, 결혼이주 필리핀여성의 한국에서 반평생 살아가기 생애사, *디아스포라연구*, 15(1), 43-82.
- 박연진·박윤조, 202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사회과학리뷰*, 7(1), 69-88.
- 송원일, 2022,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시국의 중도입국청소년 이슈 분석,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7(2), 61-81.
- 신주미·김승환·김민규, 2022, 중도입국 학생의 온라인 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발전 방향 모색,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3), 53-78.
- 옥시후·안정훈, 2021, 다문화 가구 여성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영향 요인 분석, *아시아여성연구*, 60(3), 95-125.

- 이은혜·장인실, 2021, 코로나시대 다문화가정 밀집지역 초등학교의 원격수업 운영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14(1), 71-93.
- 이이슬·이충호, 2021,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의 재난안전정보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재난안전정보를 중심으로, *건지인문학*, 32, 265-285.
- 이래혁·이재경, 2022, 다문화가정의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가 청소년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7(2), 153-174.
- 이재경·이래혁, 2022,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불안과 자살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과 복지*, 24(2), 7-33.
- 장현진·이수현, 2022, 이주배경 청년의 코로나 19 스트레스, 취업장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3), 1-27.
- 조제성·김다은, 2021, 코로나19 이전-이후 혐오범죄 변화와 혐오범죄 폭력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0(4), 409-432.
- 진미정, 2021, 코로나19 시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실태 및 비대면 프로그램 지속 의향 영향 요인 탐색: 종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가정과삶의 질연구*, 39(1), 97-111.
- 진소연·정명희, 202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활동참여가 결혼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문화산업연구*, 22(1), 111-117.
- 허일수, 2021, 디지털 청소년활동 현황과 미디어 접근성 분석 : 부산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애인 및 다문화 청소년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6(2), 59-78.
- 허정원·장주영, 2020, 코로나19 확산시기 서울시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특성과 생활인구 변화, *한국공간환경학회공간과 사회*, 30(3), 99-137.
- Clark, E. Fredricks, K. Woc-Colburn, L., Bottazzi, M.E., & Weatherhead, J., 2020, Disproportionat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immigrant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July 13, 2020. GCIR. (<https://doi.org/10.1371/journal.pntd.0008484>)
- Lan N. Đoàn, Stella K. Chong, Supriya Misra, Simona C. Kwon, Stella S. Yi,

- 2021, Immigrant Communities and COVID-19: Strengthening the Public Health Respons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AJPH), October, 2021.
- Patton, M. 2002, Qualitative Reserah and Evalvation Methods, 3rd edn, Thousand Oaks, CA: sage.
 - Priebe L. R, Rose, R. Hoch, A. Soares, C. Fernandes, A. Galvão, H. & Allen, J.D, 2021,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Brazilian Immigrant Community in the U.S: Results from a Qualitative Study, International of journal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021, 18(7), 3355 (<https://doi.org/10.3390/ijerph18073355>)
 - Wilson, F.A. & Stimpson, J.P. 2020, US Policies Increase Vulnerability of Immigrant Communities to the COVID-19 Pandemic. Ann Glob Health, 86(1), 57(Published online 2020 Jun 10. doi: 10.5334/aogh.2897)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http://www.kdca.go.kr>
-
- 민중의소리 <https://www.vop.co.kr>
 - 부산일보 <https://www.busan.com>
 -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
 - 업다운뉴스 <http://www.updownnews.co.kr>
 -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
 - 참세상 <http://www.newscham.net>
 - 한겨레 <https://www.hani.co.kr>

● 투고일: 2023.01.20. ● 심사일: 2023.01.28. ● 게재확정일: 2023.02.13.

| Abstract |

The life of marriage immigrant women change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Jang Imsook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marriage immigrant women's lives have changed after the COVID-19 pandemic and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To this end, an in-depth interview survey was conducted on 7 married immigrant women. The data analysis focused on identifying changes and problems after the COVID-19 pandemic, focusing on six areas: daily life, labor and income, health care, child care and education, social relations, and foreign discrimination.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was categorized into "Daily life of be stuck at home", "Livelihood is at a loss due to COVID-19 unemployment and employment difficulties", "work-household-care triple distress due to care deficit", "primary relationships and narrow social network centered on native people", and "Increased anxiety due to social prejudice".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Key words〉 COVID-19 pandemic, Marriage immigrant women, support policy, A changed life, In-depth interview